

제 15 장 사도 행전 Tape #8104

1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함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강한 감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서는 더 강력한 감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성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느꼈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개종하는 과정으로 할례 의식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했고, 모세의 법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것들이 필요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간 것에 대해, 심의할 목적으로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갔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말인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음, 보시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그 환상을 내게 주셨는데, 주님이, 내게 가라 하셨고, 나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을 뿐이요. 그러나 많은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목격하므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으나,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많은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세워 놓았지만, 그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누었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경험을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당신들도 그곳으로 가 보기를 원할 것인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통찰력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1 “그 뒤 십사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 “곧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의 관심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지함도 없이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가진 자유를 단지 엿보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5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무엇이냐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 없이 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높여지고 들어올려지는가를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데, 바울은, 당신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회의에서 내게 더하여 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7

“오히려 그와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를 위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8 “이는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 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음이라.” 9 “또 기둥 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 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고자 함이라.” 10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으로 행하던 바라.”

11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12 “이는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 자기 자신을 분리하였음이라.” 13 “이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14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분리를 만들어 내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까지 가지고 가서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믿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과 무슨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 혹은 구원 받기 위하여 꼭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는가?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등등입니다.

2 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우리는 디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

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절 “그들이 교회의 전승을 받고 길을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래서, 도중에 그들은 다른 모임으로 인해 멈추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었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베니게에도 모임이 있었고, 지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지날 때마다 멈추었고,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방 세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4 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들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 뒤 그들은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공중, 즉 공개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5 절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과 의식에 반드시 충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례의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6 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모으니,” 7 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 (그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매우 오래 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8 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거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을 다시 헤아리고 있으며, 물론 이것은, 앞의 10 장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는가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여는데 쓰는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으로, 그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가르쳤던 복음을 믿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쓰기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들어서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대답은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해 들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거룩함이나 의로움의 어떤 정도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가르쳐진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믿을 때 그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선언하고, 그 분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 편에서,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여기 낮은 곳에 있어, 그런 거리에서 그 분께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차라리, 그것은 당신께서 기원에서부터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들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 분은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원에서부터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 분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자, 이 이야기의 약간 뒤에서, 야고보도 태초부터 모든 것이 그 분에게 알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교리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토의 속에 바르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나님의 전지의 교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분은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의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 뚜렷하게 언급했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과 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니,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실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분의 통찰력 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신이 없다고 했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시어, 그것은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언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할례의식이 최초로 실행되기도 전에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선언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칭의를 가르쳤기에, 이것은 그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와 그들을 다르게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10 절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라 능히 메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베드로는 여기서 매우 정직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가르쳐지고 있었음으로 이 율법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계속적으로 논쟁했었다는 것을 노트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법을 어겼다고 끊임없이 고소했으나,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분은 율법을 둘러싸고[역자주, 감추고] 점점 발달한 전통을 어겼을 뿐인데,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노력을 통해 많은 전통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서, 안식일은 어떤 짐도 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짐을 지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짐을 지는 것인가? 만약 당신이 나무다리를 가지고 있다면, 짐을 지는 것인가? 만약에 당신이 안식일에 나무다리를 붙이면, 즉 당신이 나무다리를 붙이고 걸어간다면, 그것이 짐을 지는 것인가? 만약 당신이 틀니를 가지고 있어, 만약 그것을 안식일에 낀다면, 짐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그들은 실제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토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토의가 옳다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들의 결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본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법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심한 교통사고로, 죽을 만큼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까. 마땅히 당신은 지혈제를 사용할 수 있겠고, 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었겠으나, 안식일에 상처를 가료할 수 없고, 연고도 바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료로 향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감싸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최고조의 [악한] 상태에 도달한 셈입니다. 그가 안식일에 치료를 했으니,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지요.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으로 볼 때, 그 분은 그것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 의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는 진짜 날카롭게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의 의미를 찾아 그 해석을 67 권에 담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제정한 건가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 율법에 대한 위법 및 위반 행위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보시오, 왜 노예의 명예를 그들의 목에 두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고 묻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나 너희 조상들조차도 다룰 수 없었던 것을 왜 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고 묻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율법의 역사로 의롭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역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전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에 돌립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얻었고, 율법으로 그것을 구한 유대인들은 결코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다만 당신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죄책을 말할 뿐입니다. 율법은 당신의 죄를 흡수할 힘이 없기에, 그것은 당신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단 말이지요. 오직 당신을 저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퍼졌던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회에 직면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행함의 필요성을 믿음에 더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노예의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 받기 위하여 어떤 의식적인 것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구원할 수 없고, 법령이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에서 떨어져 당신은 그 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은 행위를 이끌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진실로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나는 나의 마음으로 그 분께 복종할 것이고, 그 분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 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종이 아니며,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내가 그 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 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율법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율법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단지 쉽게 성공하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쉽게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당신의 동기가 사랑일 때, 시계를 바라보지 않으며, 한 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가를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40 시간의 개념에 대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만약 당신이 GM 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 참 좋습니다. 출근 카드를 찍으세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벌써 5시가 되었군, 나는 더 방문을 받지 않을거야! 라는 등의 그런 일 따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일 방문하라고 하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계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분이 나의 삶일 때 말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8 시간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방문이 있거나, 언제 필요가 일어나든지 당신은 주님께 봉사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금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목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하는데, **11 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또한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다름이 없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속죄 희생을 믿으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만 합니다.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식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시고, 의로움을 위하여 그 믿음을 전가하셨습니다.

12 절 “이에 은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그들은 첫 번째 여행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했습니다.

13 절 “두 사람이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 가신 것을 시몬이,”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를 위한 같은 이름입니다.) “밝히 말하였으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이방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뒤, 바울은 롬 11 장에서 다가올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구절로 대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아야 했으나, 일정한 수가 될 것 같이 보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 아실 것이기에, 누가 믿을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지 못하는 것[소경]이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발생하나, 그 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당신도 같은 아이디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방문하면 할수록,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꺼내 오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의 충만한 부분에 와있다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대략 완전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그의 교회를 그 때 취하실 것이고, 나중에 있을 7 년 동안에는 유대 나라를 다루시게 될 것이며, 그 뒤,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다시 오셔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그분의 왕국은 도래하며,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 위에서도 마쳐질 것입니다.

강단으로의 초청[altar calls]은 항상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자주 오늘 밤 강단의 초청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성취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으니, 이 전체의 강단 초청이 끝나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 마지막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 밤들 중 하나에서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빌리 그래함이 거대한 텔레비전 전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가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위성 텔레비전을 전 세계에 연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로 말예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한 성경구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즉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된 뒤에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에 일어납니다. 복음이 오늘 밤에 모든 종족에게 가르쳐 집니다. 흥분되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14 장에서, 요한은 하늘 가운데를 나는, 영존하는 복음을 가진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요한이 위성을 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밤에 이 메시지가 우주

안의 5 만 마일이나 떨어진 우리의 위성으로부터 북미의 전 지역에 방송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위성으로 보내지고, 그것이 미국의 전 지역에 쏘아진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꺼내십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15 절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16 절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지금 이것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데, 하나님의 왕국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지야, 그 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파괴된 다윗의 장막, 내가 폐허를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 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도달해야만 합니다.

18 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고,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한, 나에게 가장 강력한 변증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 대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드러난 적이 있기 전에, 오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보이셨던가! 야고보가 여기에 선언했던 것을 꼭 증명했던 성경구절에 있는 이 놀라운 대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19 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절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우상들의 더러움과,” (야고보가, 나의 제안은 이렇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가 교황의 최고 지도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권위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관해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과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소할 방법이라고 그는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식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우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삼가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먹었던 대부분의 고기는 그들의 신들의 전에서 그들이 취했을 것이고, 그들은 희생물을 드려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의 신들을 위해 제단에서 태웠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을 위해 보관되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보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인데, 종종 시장에서 보는 산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은 그들이 우상의 더러움에서부터 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사고는 당신들이 함께 먹기 위하여 이 장벽 사이를 깨는 것,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고기에서와 그들의 고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약간의 코셔[역자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요리하는 것]를 다소 유지하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기에서 완전히 피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죽이는 코셔의 한 부분이었던 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피를 흘려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행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유대인과 이 일들에 대한 양심 때문에 당신이 먹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피를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들이 우상에게 희생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문제를 이방인 교회에게 쓰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는지를 파는 사람에게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묻지 말라! 그냥 사라. 집으로 가져가서 먹으라.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물었는데, 그가, ‘예’라고 하면, 네가 먹을 때 당신의 양심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당신이 알다시피 말이야! 당신이 친구로부터 저녁 자리를 초대 받았을 때, 역시 당신의 양심을 위하여 그 고기에 대해 묻지 말라.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냥 먹으라. 질문하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인데, 이는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양심은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니,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당신이 그 고기를 살 때도 그것이 우상에게 희생으로 드려졌는지를 묻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쓰기를, 우상의 더러움을 삼가고,) **“음행과”** (헬라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덕의 종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기독교 이전에는 음행은 매우 보편적이었고, 주로 수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혼의 맹세와 음행의 금지를 신실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하였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그것은 목매어 죽이는 것들로부터인데, 죽이고 피를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교살하더라도, 그 피는 그

고기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고, 피로부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같은 것을 일종의 덮는 것을 말합니다. **21 절 “이는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여러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라 하더라.”**

22 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서,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것이라고 잘 전했다면,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명하게 거기로 갈 편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 몇 명을 보냈습니다. 편지에 대한 위조나, 혹은 어떤 것으로든지 그들이 바울에 대해 고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구두로 이 편지 안에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추구해 왔다는 결정입니다.

23 절 “그들이 이 두 사람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 절 “우리가 들은즉 우리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가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음으로,”** **25 절 “한 마음으로 모이고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26 절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릎 쓴 자들이니라.”** **27 절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니,”** 이것이 결정된 것이라고 그들은 당신들에게 확인할 것입니다. **28 절 “이는 성령님과 우리가 다음의 필요한**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함을 좋게 여겼음이라.” 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주요 교단들은 그들의 회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류상 연례적으로 만들어진 결정을 읽습니다. 회합들과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수여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많은 주요 교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합을 열면, 그것들은 큰 논쟁거리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나뉘어 100 여 교회가 그 회합에서, 당신이 알다시피, 떨어져 나갑니다. 그 회합은 단합보다도 더 큰 불일치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모임 소집도, 사실상 그 모임의 목적은 단합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와 우리들에게 좋게 보인다는 것을 노트하세요! 오, 기도를 위해 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회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 문제에 대해, 논쟁되고 있는 이 문제들에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 이 회합으로부터 우리가 기록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에게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 문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안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로서, 교회가 나뉘기보다는 단합했기 때문이죠. 오, 교회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골치 아픈 상황에 대해 성령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것, 이것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지침을 찾는 것이 이렇게 크게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더 이상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함이 성령님과 우리에게 좋게 보였습니다. 29 절 “큰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는 것이리라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그리 길지 않은 규범과 규칙입니다. 단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30 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하니,” 31 절 “우리가 읽고 그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들은 위로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다시피 문제가 풀렸습니다.

32 절 “유다와 실라도 대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머물렀고, 대언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또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3 절 “거기서 얼마동안 머문 뒤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보냄을 받고 사도들에게 돌아갔으나,” 34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35 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니라.” 위대한 교회! 교회에 다양하고 좋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권고를 받고 있는 만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된 교회입니다. 며칠 뒤에, 그러니까, 35 절과 36 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인데, 모호하여, 그것이 얼마나 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35 절 사이에 그들은 한참동안 계속했고, 바로 성장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36 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각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알아보자 하니,” 지금 바울은 꼭 여행벽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당신이 잘 알다시피, 그가 아주 긴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가세, 그리고 뭔가를 하세! 우리가 가르쳤던 그 도시들로 가서 돌아보세.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며, 의심할 것 없이

그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모두에게서 떠난 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그는 정말로 여행을 하고 싶었고, 가서 보고 싶었고,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37 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38 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를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큰 문제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 교통 편의를 주어 집으로 가게 했을 때, 그에게 향수병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며, 알다시피, 나는 그를 데리고 가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가 첫 번째 여행에서 우리를 떠났잖아! 아마도 다시 그에게 향수병이 돌을 건데, 나는 그를 데려가고 싶지 않네! 라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나바의 조카였기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을 읽어 보면, **39 절 “이에 둘 사이에 말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격렬한 일이었다는 것이고, 말다툼이 꽤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 좋다,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러스로 향하고,” 40 절 “바울은 실라를,” (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택한 뒤에 형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부탁을 받고 떠나,” 41 절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우리는 두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가 여기서 논쟁하는데, 너무 심해, 동반자 관계를 깨는 그런 흥미로운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의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팀 대신에 두 팀을 원했다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말다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으니, 영역을 두 배로 맡기실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말다툼으로 인한 실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취하여 키프러스로 머리를 돌렸고, 바울은 그 당시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물론 이번 여행에서 그들은 모든 길을 넘어 유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한 팀 대신에 두 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갖는 한에는 효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선교사들의 노력을 넓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 디모테전서를 썼다는 것을 노트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고, 일들이 좋게 보이지 않아, 곧 네로 앞에 나가야 할 판인데, 그 때 네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가 손 안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디모테에게 쓰면서 말하기를, 나의 떠날 날이 가깝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는 끝에 와 있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테에게 말하기를, 너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마가로 인해 말다툼을 했지만, 지금은 그가 바울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마가를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인사를 가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인사를 보내면서,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마가를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불편함이 결국은 가라앉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팀 대신에 두 선교 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의견이나

논쟁의 차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그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전[역자주, 모든] 역사가 멀리 가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의 사역을 보는 흥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이 모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이 자리 잡아 가는데 당신의 지혜와 안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님의 인도에 열리고 민감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끊임없이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여 놀랍게 서 있습니다. 주님, 매일 매일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하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곳에 남아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길에 서있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당신이 하시기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곳에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열려 있고,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계속주소서, 주님. 이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넣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진리를 그들과 나눌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 자라기를 계속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